



# 보물과 진주를 얻은 기쁨 (마태 13:44-52)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교황, “반려견에 축복을” 여성 질책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기르는 문화를 ‘이 기적’ 이라고 정의했던 교황이 이번에는 반려견 축복을 위해 찾아온 여성을 질책했던 것이 뒤늦게 공개됐다.

12일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86)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률 하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한 회의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보다 반려견을 입양해 양육하는 사례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며 최근 경험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최근 아기들을 축성하는 일반알현에서 아기 대신 작은 개를 데려온 한 여성을 발견하고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나무랐다. 많은 어린이가 굶주리는데 나에게 작은 개를 가져왔느냐고 얘기했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꾸짖는 것은 비단 이번만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교황은 교황청 수요 일반알현에서 “고아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 일종의 이기심이 목격된다.”면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원치 않아서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다. 그러면서 개나 고양이는 여럿 키우는 그야말로 반려동물이 자녀를 대체하고 있다.” 고 공개적으로 질책한 바 있다.

그는 또 “웃기지만 현실이다. 이렇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걸 부정하는 것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인간애를 앗아가 버린다” 며 “우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 한탄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교황은 “아이들의 탄생은 곧 희망을 축적하는 지표다. 출생하는 아이가 적으면 희망은 거의 없다.” 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황이 줄곧 반려견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국 벨파스트의 국민보건서비스(NHS) 관리자인 소피 러스비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며 교황의 발언에 대해 “정말 나이브하고 둔갑하다” 고 꼬집었다. 가톨릭 신자로서 그는 자신이 의학적인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수치심과 싸워왔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자주 말씀하신 것을 복음 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밭에 묻힌 보물 또는 장사꾼의 진주에 관한 비유 말씀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고 간단명료하게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어떤 대농가에 고용된 가난한 품팔이꾼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날 그는 파종 된 밭을 갈려고 겨릿소를 물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을 갈다가 갑자기 소 한 마리의 다리가 푹 빠졌습니다. 그 가난한 일꾼은 웬 일인가 하고 살펴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지요. 소의 밭이 빠져 있는 그 구멍에서 무엇인가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안에 손을 넣어 만져 보니 그것은 금화가 가득 차 있는 단지였습니다.

그는 하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어려서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가난과 근심은 이제는 영영 이별을 고하게 되겠구나 하며 어떻게든지 그 보물을 손아귀에 넣어 보려고 궁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이 밭을 반드시 내 소유로 만들어 저 보물을 뽕뽕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그 구멍을 재빨리 손으로 다시 메우고 기쁨에 벅찬 설레는 가슴으로 겨릿소를 물고 저녁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웃사람들이 이상

히 여기는 중에도 자기의 가난한 소유물 전부를 팔아가지고 이런 사정을 까맣게 모르는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또한 그 보물도 함께 사버렸습니다. 그는 일약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즉시 또 하나 다른 비유를 이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고.

앞의 보물의 비유에는 가난한 사람을 다루었으나 이번에는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랍밭의 장사꾼이라면 부자의 상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 많은 진주 상인은 각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하던 차, 그는 갑자기 어떤 상점에서 생전에 처음 보는 귀중하고도 멋진 진주 한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 진주가 자기 눈으로 본 어떠한 진주보다도 귀중한 것이며 또한 자기의 전재산보다도 더 값이 나간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진주를 내 소유로 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그는 즉시 예약을 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매각하고 그 진주를 구입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부호가 되었구나 하며 그는 매우 흡족하는 빛이었습니다.

교황자매 여러분! 이 두 개의 비유가 본시 의도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훈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기 일생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나 진주와 같은 하느님 나라를 찾아 얻은 이들이 맛보는 최고의 기쁨이나

만족감입니다. 가난한 고용인이건 돈 많은 상인이건 하등의 구별 없이 하느님 나라를 찾아 얻은 기쁨은, 일생에 지냈던 모든 것을 그것이 제아무리 큰 부귀이거나 아무리 좋았던 영화일지라도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보이게 하며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라도 무조건 버리게 하며 조그마한 미련도 가지지 않게 합니다.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저 보물이나 진주 앞에는 빈지와 부자의 차이는 하찮은 것이어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는 우리 생애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며, 일생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 고용인이나 돈 많은 상인이 보화나 진주를 얻어 만났을 적에 느꼈던 저 굉장하고도 압도적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줄 것이며, 아니 그 이상의 행복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밭에 묻힌 값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또한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 즉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희생하면서 <하늘나라>라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값진 보배와 진주를 찾아 얻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와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큼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하겠습니까.

-김정진 신부-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0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Anthem AARP, Brand new, Central Health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